

“잊지 말자”...학생들 손으로 부활한 세월호

광주지역 초·중·고 세월호 3주기 추모행사 다채

전남공고 산업설비과생들 모형 제작 교내정원에 전시 성덕고·장덕고 등 희생자 애도 리본 만들고 편지 쓰기 종이배 구하기·안전 관련 보물찾기 등 초등생도 동참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중이다.

11일 전남공업고등학교에 따르면 학생들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지난 3월 말부터 세월호 모형을 제작중이다. 세월호 모형은 길이 2m50cm, 높이 1m20cm 크기이며 이번 주안에 마무리 과정을 거친 뒤 목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14일 교내 정원에 거치할 예정이다.

세월호 제작에는 산업설비과 1·2·3학년 학생이 모두 참여했고 용접기능자격증이 있는 3학년은 완성단계에 투입돼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

학생들이 만든 세월호 선미를 비롯한 선체 외부에는 ‘무사귀환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노란 리본이 걸려있고, ‘잊지 않을게요. 함께할게요’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이밖에 지난 10일 전교생이 리본만들기 행사에 참여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약 81명의 학생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선항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전남공업고등학교 최홍선 선생(48)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의미있게 보내고자 학생들과 세월호 모형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아이들이 세월호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 중 리본 하나까지 직접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진실규명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덕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정문에서 본관까지 양쪽으로 설치된 임시철망에 노란 리본을 매달았고, 중앙 현관에 위치한 기억의 나무에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한 후 매달았다. 또, 학생들이 직접 추모 포스터를 제작하여 21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오는 13일 수완호 수공원에서 열리는 ‘광산 촛불문화제’에 동아리 ‘홍사단’, ‘VANK’ 학생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장덕고등학교 학생들은 세월호 추모 팔찌, 배지를 공동으로 구매해 착용함으로써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14일에는 추모 동영상 상영을 시정하고 추모글을 낭송하는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 교내 곳곳에 추모 자료를 전시해 희생자들에게 세월호 사태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전남중학교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추념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미안해 엄마,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등의 추모곡을 듣는다. 또, 12일 진행되는 추념식에서 “잊지않을게-세월호와의 약속”이라는 안전교육 동영상 상영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모 글쓰기, 노란 리본 만들기 등의 행사도 진행중이다.

풍영초등학교는 13일 ‘금요일엔 돌아오



전남공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세월호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세월호 모형을 만들고 있다. 위는 학생들이 만든 세월호 모형. <전남공고 제공>

림’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3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중 하나인 ‘종이배를 구하라!’는 제한 시간 20초 동안 매트릭스처럼 얽혀있는 털실을 피해서 노란색 종이배를 구출해 오는 활동이다. 또, 세월호 희생

자 및 유가족들에게 편지, 엽서를 써서 걸어주는 ‘엽서 쓰기’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관련된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붕괴 위험’ 평화맨션 재건축 본격화

주변 도로·부지 편입해 추진 다음주 조합설립 인가 신청

지난 2015년 붕괴 위험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의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1981년 준공된 평화맨션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지는 등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부지에 재건축할 경우 기존 10층 건물이 8.5층으로 낮아지고, 복도식 건축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화맨션 재건축조합은 기존 부지 면적 2078㎡에 주변 도로·인근 부지 700㎡를 편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은 다음달 정식 인가를 받으면 인근 부지 소유주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편입 여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지가 결정되면 시공사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전망이다.

평화맨션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창립총회를 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인원까지 포함한 11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무효표 2표를 제외한 민정일치 찬성을 얻은 추성길 재건축추진위원장을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 정관과 업무규정 등 12개의 안건을 97% 넘는 찬성으로 의결했다.

재건축조합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빠르면 다음주 초 광주시 북구에 접수할 예정이다. 북구는 접수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재건축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인가가 승인되면 재건축은 속도를 내게 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 12종 검출

국내에서 판매되는 쉐넬(연초)담배 연기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12종이나 검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 위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쉐넬 연기에서는 IARC가 구분하는 ‘1급’ 발암물질 7종과 ‘2B급’ 발암물질 5종이 나왔다.

IARC는 발암물질을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발암 추정 물질로 보는 2A급, 발암 가능 물질로 보는 2B급으로 나눈다. 쉐넬에서 나온 1급 물질은 포름알

데히드와 벤젠, 1-아미노노프탈렌, 2-아미노노프탈렌, 1,3-부타디엔,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단열재나 접착제에 많이 쓰이는데 사람의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 천식 등, 질식을 일으킨다.

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쓰이는 벤젠은 노출 시 두통과 현기증이 생긴다. 고농도로 접촉하면 신장, 간, 소화기계, 피부에 독성이 퍼지면서 발작, 혼수상태에 빠지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앓을 수 있다. <연합뉴스>

허위 난민신청후 제주도 이탈 목포해경, 중국인 2명 검거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하고 제주도를 무단이탈한 중국인 2명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무사증(비자면제제도) 입국 후 불법 취업활동을 하고 제주도를 이탈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로 중국인 왕모(29)씨와 단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왕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3일 중국 요녕성에서 무사증으로 제주공항에 입국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다. 지난해 4월13일 난민 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악용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항공권을 구입, 제주도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 등은 경기도 오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시15분경 경기도 오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왕씨와 단씨를 검거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음주운전 면허정지 당하고도...또 핸들 잡았다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를 당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아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철창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모(42)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오지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A(여·54)씨를 들

이박고 도주한 혐의.

○조사 결과 최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의 전과가 드러났는데,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합유예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음주운전에 무면허, 뺑소니까지 3관왕이 됐다”고 혀를 끌끌.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미수습자 9명 수습하고 침몰 원인 제대로 밝혀야

세월호 육상 거처...남은 과제는

수색 앞서 방역·안전도 조사 26m 워킹타워로 진입로 확보 현장본부 미수습자 수습체제로

철재 받침대 3개에 세월호를 거치하고, 선체를 떠받치던 모듈 트랜스포터 8개(600축)의 분리 작업을 끝으로 613일간의 세월호 인양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다. 남은 과제는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선체 조사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오후 목포선항 취재

지원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부로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모두 종료됐다”면서 “인양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현장수습본부는 미수습자 수습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바다와 맞닿은 항만 끝에서 내부로 40m 떨어진 곳에 길이 110m짜리 받침대 3개 위에 거치됐다. 그러나 이날 선체를 받잡는 선박에서 신고 올라와 떠받치고 있던 모듈 트랜스포터 8개(600축)를 이날 빼내는 과정에서 선체가 목포대교 방향으로 6도가량 기울었던 사실이 유가족 측에 관측됐고, 모듈 트랜스포터의 타이어 일부(6개)가 파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세월호를 3개의 받침대 위에 별다른 조치 없이 거치해둘 경우 선체가 쓰러져 넘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으나 우려가 나왔지만 해수부 측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모듈트랜스포터를 선체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선체 변형 내지 훼손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선체 내부 수색에 앞서 부식방지를 위한 선체 외부 세척, 내부 방역, 선체 안전도 조사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 선체조사위원

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께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 수색이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체 내부 확인과 수색을 위한 작업자 진입로 확보를 위해 세월호 선수와 선미 양측에는 조만간 26m짜리 워킹타워가 설치된다.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지그재그 형태의 철재빔 사다리 형태로 선체 외부와 지상을 연결한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상하이셀비지 관계자는 “상하이셀비지 측 잠수사들이 촬영한 세월호 해저 영상 자료가 있다고 들었다. 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있다. 최종보고서 제출하면서 모두 제출하겠다. 우리는 인양을 맡은 업체다. 진실규명은 한국 정부 몫”이라고 답변했다. <목포=김형호기자khk@kwangju.co.kr>

상가 건물 매매 | 경매 / 투자 전문

010-7384-7800 |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방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방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방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광주,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변 점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이상 / 문선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